

애니메이션작품 속에 비추어진 '제라르 주네트' 의 시간에서 『순서』의 분석 -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초속5센티미터』 중심으로 -

김재호 (백석예술대학)

차 례

1. 서론
2. 『초속5센티미터』 스토리
3. 순서
 - 1) 회상
 - 2) 예상
 - 3) 혼합
4. 결론

1. 서론

애니메이션작품은 영화와 같은 스크린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한 표현기능을 갖고 있으며, 표현을 위한 내적 내용전달을 위해서는 스토리를 내재하고 있다. 안 로슈(Anne Roche)는 시나리오쓰기와 실제이론을 통해서 “영화는 스토리를 이야기한다. 이 스토리와 거기서 제외된 이야기는 특유의 시간적 특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스토리는 내레이션(서사)의 부분이며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진행을 시키기 위해 제각기 특유의 시간적 특성이 있다. 시간 속에는 서로 다른 내용의 구조를 시간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며 전개되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제라르 주네트’를 인용하여 시간의 다른 양상에 대한 이론을 저작에서 비추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텍스트에 대한 수사적 재 정의와 고대 연결기술과 웅변술이 문학기호학 사이의 상호의존관계를 밝혀 줄 수 있는 구조적 이론에 언급과 더불어 주요한 문제들을 순서 없이 인용, 과격 구문, 반복을 연구하며 이에 대한 전달력의 구조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발전시키며 서사라는 용어는 작품을 개인의 가치판단으로부터 구해내려는 수단으로 서구문학의 개별 장르를 통합하고 원형이라는 핵을 중심으로 서사의 역사를 체계화하였다.

서사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모방과 재현에 기초한 경험적 서사와 상징과 주관적인 진실에 기초한 허구적 서사가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르네상스

이후 통합을 보이는데 19세기 소설은 경험적인 서사가 우위에 있었고, 20세기에 들어서 소설은 허구적인 배경에 따라 표현이 서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2차 대전이 종전 된 이후 소설이론과 당대의 철학이 공유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서사를 언술행위, 즉 서술자가 조정하는 담론으로 보는 것이었고, 말하는 자를 끌어들이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는 것이었다.

‘제라르 주네트’의 『서사 담론』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쓰여졌다. 그의 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사의 형식의 측면을 언급하면서 스토리의 시간과 서사의 시간을 3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였다.

첫째는 스토리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와 서술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는 어떻게 다른가?

둘째 스토리와 사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순서와 서술에서 사건이 어떻게 시간에 맞추어 배열되는가.

셋째 스토리와 이야기 사이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수는 어떤가?

위의 세 가지 내용 중 첫 번째 순서를 바탕으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초속5센티미터』 극장용 애니메이션 작품에 적용시켜서 대상 작품 내용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 하였는가를 아래 회상-예상-혼합으로 구분하기 위해 스토리를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 1) 제1회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에서 회상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구분한다.
- 2) 제2화의 스토리와 사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순서에서

사건이 어떻게 예상에 적용하였는가?

3) 제3화 회상과 예상의 혼합 형태의 표현은 어떤가?
각 화수에 서로 다른 위의 세 가지 내용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초속5센티미터』 스토리

연구 작품은 이야기구조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형식과 내용의 3화를 구성하였다.

제1화는 주제가 <벚꽃이야기>로 ‘토노 타카키’(男)와 ‘시노하라 아카리’(女) 두 남녀 중학생이 주인공으로 ‘시노하라 아카리’학생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또 현재의 진행되어지는 사건이 이입되면서 두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그린 영상 이야기이다.

제2화는 주제가 <우주비행사>로 ‘토노 타카키’(男)와 ‘스미타 카나에’(女) 고등학교 3학년인 두 학생이 앞날을 생각하며 현재의 마음과 미래에 대한 생각의 표현과 이성애에 대한 감정의 생각을 ‘스미타 카나에’(女)의 내레이션을 중심으로 영상표현을 구성한 스토리이다.

제3화는 메인작품의 결론을 짓는 주제로 <초속5센티미터>이다. 이번 내용은 성인이 되어버린 ‘토노 타카키’(男)의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 3년간 사귀어 여성(미즈노)에게 이별을 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순수한 감정을 돌이키면서 이성 관계에서 발생되어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시노하라 아카리’(女)와 주고받는 소리를 상상하며 영상표현에 마음의 소리를 내레이션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형식의 스토리를 구성되었다.

3. 순서

1) 회상

회상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라르 주네트의 회상은 과거를 서술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속5센티미터』에서 회상하는 장면은 제1화에서 중심으로 나타난다. 스토리의 구성을 플롯의 3단계를 나누면 시작은 ‘토노 타카키’(男)와 ‘시노하라 아카리’(女)의 헤어짐, 그리고 둘이의 시적의 사고 행위 2단계는 ‘토노 타카키’(男)가 이사를 하기에 앞서 ‘시노하라 아카리’(女)를 찾아가는 장면 3단계는 둘이 만나고 헤어지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3단계의 극의 구조는 편지를 읽으며 상상하는 장면과 스토리의 진행에 따른 행위 방향으로 구분되어진다.

1화와 달리 2화에서는 ‘타카키’가 대학을 진학하기 앞전의 성장한 모습으로 같은 반 여자 친구 ‘스미타 카나에’(女)의 방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진다. 도입부에는 ‘카나에’의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이다. 전개부는 ‘카나에’가 ‘타카키’를 짝사랑하게 된 부분으로 자신의 목표와 병행되어 전개된다. 그러면서 ‘카나에’가 ‘타카키’에 대한 짝사랑 방백으로 종말로 구성을 하였다. 그리고 회상 부분은 단1회로 타카키가 전학 왔던 시점을 전개부분에서 적용하였고, 자신의 변화되는 과정에 상상 부분을 적용하였다.

표 1. 제1화 벚꽃이야기의 서사구조에 따른 시간의 순서

순서/시제	내용	비고
과거-3	눈같이 떨어지는 벚꽃의 꽃잎이 떨어지는 속도-초속 5센티미터-‘시노하라 아카리’(女)의 대사	
타이틀		
도입부	현재-1 편지를 읽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과거-2	초등학교시절 ‘토노 타카키’(男)와 ‘시노하라 아카리’(女)의 친분이 되어버린 공통적인 요소	
과거-1	두 사람의 만나게 된 동기	
현재-2		독백
과거-4	도치기에 공립으로 전학을 가게 된 ‘아카리’	
전개부	현재-5 ‘아카리’를 만나러 가는 ‘타카키’	전철을 타고 가는 ‘타카키’
과거-5	‘아카리’와 통화 중 자신의 모습에 후회를 하는 ‘타카키’	독백
현실-6		독백
상상	자신만의 과거와 관계없는 상상	독백
현실-7	목적지에 다와 가는 ‘타카키’	
종말부	현실-7 아카리를 만난 ‘타카키’	
과거-6	키다란 벚꽃나무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	
현실-8	아침이 되어 떠나가는 ‘타카키’	

마지막으로 3화에서는 주인공 ‘타카키’가 1화에서 나왔던 ‘아카리’에 대한 회상의 집착으로 인하여 현재 시점에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표현하며 벚꽃잎의 떨어지는 순간순간의 찰나에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을 방백으로 비켜 지나간다.

2) 예상

예상이란 이야기의 현재 상황 속에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예감이다. 예상은 회상과 마찬가지로 외적 예상과 내적 예상으로 구분된다. 외적 예상은 주어진 스토리에서 보다 더 늦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미리 서술하는 것이며, 이것은

주 스토리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내적 예상은 스토리를 방해하고 간섭하여 주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제의 강도를 높인다.

표 2. 제2화 “우주비행사”의 서사 구조상에 표현되어진 예상의 구분

순서/시제	내용		비고
도입부	현재	'스미타 카나에'가 '토노 타카키'를 짝사랑하는 간절한 모습	
	과거	'토오노 타카키'의 전학 오던 시절	상상
전개부	현재	대학 진학을 위한 두 사람의 주변설정	미래에 대한 부분 예견
	현재	우주비행선의 출현으로 미래에 대한 '카나에'의 예견	
	상상	'토오노 타카키'의 미래에 대한 상상	
	현재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다.	
종말부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두사람의 관계에 대한 '카나에'의 감정표현	마음의 고통의 표현

반복예견은 지나간 경험이 곧 닥쳐 올 미래에 대한 것에 종말임을 보여주어 그 다음 장면의 예고가 되는 경우이다. 현재의 사랑이 그 다음 사랑을 거부하여 고통이 지속되거나 목적에 대한 대상이 바뀌어도 사랑의 고통은 지속하게 되고, 결국 그러한 고통으로 자신의(우리들) 마음속이 파괴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작품에서 비추어 볼 때 2화에서 예상을 엿 볼 수가 있다.

3) 혼합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후에 일어날 것이다’는 회상적 예견이요, ‘우리가 후에 볼 것처럼 이미 일어났다’는 예견적 회상이다. 이러한 논리는 시간의 불일치이며 연속성이 와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회상적 예견과 예견적 회상의 중복을 뒤섞임인 ‘혼합’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3화에서 비추어진 내용은 1, 2화의 중복적인 성격을 가진 혼합적 시간 분배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표 3. 제3화 초속 5센티미터의 시간에 대한 혼합구조 구분

순서/시제	내용		비고
도입부	현재	과거의 '아카리'에 대한 회상	타카키의 옛 생각에을 하며 어린시절의 길을 지나간다.
	현재	결혼한 '아카리' 현재모습	'타카키'에 대한 회상
	과거	아카리가 '타카키'의 옛 편지를 본 장면	
전개부	현재	'타카키'의 현재의 여자친구 '미즈노'와의 다가서지 못하는 단계	'아카리'에 대한 집착으로 다가서지 않게되는 현재의 모습
	현재	'타카키'와 '아카리'의 서로에 생각과 그리움	반복 영상으로 그리움을 표현
종말부	현재/과거	뮤직 영상	이루어지지 않는 어는 젊음의 이야기

4. 결론

본 작품을 연구하기 위해 디브이디를 열 번 정도는 본 것 같다. 보면 볼수록 느낀 점은 소재에 대한 선택이 스토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가는 것과 내용에 따라서 원화(Key Animation)표현에 대한 부족 부분의 표현을 배경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적용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연구부분은 '제라르 주네트'의 『서사 담론』에서 발표되어진 시간에서 순서에 대하여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초속5센티미터』의 스토리를 적용하여 연출적 표현을 분석하였다. 위 작품에서는 독특한 서사기법이다. 다른 장편과 달리 1~3화로 구분하고 1화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과거에 대한 추억을 키워 진행하였고, 2화에서는 과거의 장면은 본 작품에서 두 번째 대상의 여인에 의한 단 1회 회상으로 전개되어진 것을 도표로 알 수 있다. 3화에서는 잊혀져 버린 과거의 회상을 과거의 흔적으로 하여금 다시 연상케 하며 다시금 그리움의 표현으로 구성하고 뮤직 영상으로 한 남자와 세 명의 여인에 대하여 비교하며 젊은 삶에 대한 작가적 시각표현으로 제작되어진 작품이다. 3화에서 음악 영상으로 처리하면서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빼고 관객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유도한 형기이다. 아마도 감독은 남녀의 만남과 사랑에 대한 내적 간절함에 또 다른 외적 행위를 통해서 벚꽃 앞에 비유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참고 문헌

- [1] 안로슈/마리클로드 타랑제, 시나리오쓰기 이론과 실제, 동문선, 2004년
- [2]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년
- [3] 베르나르 투쟁, 기호학이란무엇인가, 청하, 1987년

저자 소개

● 김재호(Jae-ho Kim) 종신회원



- 1985년 : 대원동화(주) 연출부
- 1986년 : 日本國 東映Animation 演出부
- 1993년 : 삼일Animation. pro 총 감독
- 홍익대학원 애니메이션전공 석사
- 동대학원 영상학전공 미술학박사
- 1998년~2002년 : 상명대학교 만화예술학과 겸임교수

• 2002년~현재 : 백석예술대학 영상디자인학부 교수

<관심분야> : 영화, 애니메이션, 미디어 디자인